

신안 '못자리 없는 농사'로 벼 직파 재배 늘린다

장산도에 무논점과 50ha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생산비 크게 절감 효과

신안군이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쌀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점과 직파 재배'를 확대 추진한다. 군은 한해 상습지역인 압해도, 매화도, 안좌도에 건담직파 시범단지 20ha를 조성한 데 이어 돌이 부족한

지역 여건 속에서 다양한 농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우선 장산도에 무논점과 동시 축조시비기술을 투입하는 50ha의 대단위시범단지를 조성해 농업인 교육장으로 쓸 방침이다.

이 기술은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싹틔운 벼씨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으로 벼씨 파종과 함께 완효성복합비료를 땅속에 묻어줘 웃거름을 줄 필요가 없는 농법이다.

지금까지 답수직파 재배는 파종이 불균일하고 입모가 불안정해 초기 생육이 일정하지 않아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무논점과 직파재배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이 농법은 농촌인구 감

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못자리를 만들어 모내기하는 데는 노동시간이 63.1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이 농업에서는 40.8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쌀 생산비 역시 기계모내기 ha당 비용이 614만원 소요됐으나 무논점과 직파재배는 512만원으로 18%가 절감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기술은 철분을 이용한 종자

코팅방법을 적용하여 벼씨가 무거운 땅에 뿌리가 잘 내리고, 담수표면직파에 비해 조류피해가 없어 발아율이 높아 평당 주수 확보가 쉬운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김장호 기술보급과장은 "무논에 벼씨를 직접 파종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무논점과 직파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화려한 완도타워 레이저쇼. 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진 완도타워의 레이저쇼 모습. 군은 최근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댄스,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테마로 변화하도록 재경비했다. /연합뉴스

신안 가거도서 어선 안전점검 서해해경청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한반도의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어선 안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 선급(KR),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서해지방 치안협의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이 맡았다. 점검반은 선박 엔진, 레이더, 통신기 등 선박 기본 장비 정상작동 상태와 구명 장비 비치, 소방 설비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선원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종조치 요령 및 각종 안전교육도 했다.

김수현 청장은 "고유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양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전점검과 함께 무료 정비활동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스포츠 전성기

도민체전 2위·시청 하키팀 준우승 등 '경경사'

목포시가 올해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경경사를 맞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52회 전남도민체전에서 10여년 만에 최고 성적인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시청 하키팀이 제32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데 이어 시청 육상팀의 김민선 선수는 원반던지기 한국 신기록을 달성

하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도민체전에서 목포시는 2위 4종목, 3위 6종목 등 각종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데다가 구기종목이 강세를 보여 만난 4위라는 부진을 말끔히 털어냈다.

이 같은 결과는 목포시가 2006년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1학교 1운동부 지원'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지원해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9일 끝난 제32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 대회에서도 시청 하키팀이 1승1무1패로 준우승을 거뒀다. 이와 함께 지난달 개최된 제 17회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선수권대회에서는 시청 육상팀 김민선(여·27)선수가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54m76의 기록으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해, 한국 육상계에 목포시의 명예를 떨쳤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어르신 초청 '한마당 효잔치'

목포홍일중 교사·학부모·학생들 음식·다과 대접하고 관현악 공연도

목포홍일중학교(교장 윤우현)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 식당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함께 지역 어르신 350명을 초대, 한마당 효잔치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홍일중 학생들이 평소 갖고 닦은 관현악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다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스승의 날을 함께 했다.

교문에서는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반기며 교내 식당으로 안내했으며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을 부치고 식당에서는 교직원들이 대접할 음식을 정성들여 준비했다.

홍일중은 이번 행사와 같은 사회봉사활동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들도 교직원 장학회를 만들어 전 교직원이 매달 1만원 이상씩 기부한 기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360명의 학생이 538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윤우현 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올바른 효문화 정착을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과 함께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목포=김춘석기자 kjs0533@

무안경찰 '마을 1경찰관 담당제' 큰 호응

치매·독거노인 많은 농촌 치안 앞장

무안경찰서(서장 최삼동)가 농촌 지역인 무안군의 치안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치안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 1경찰관 담당제'를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마을 1경찰관 담당제는 지역경찰이 1월 1개 마을을 방문해 이장 및 주민들을 만나 지역주민의 예로사항 등을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또 민원 접수에 의한 방문이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을 찾아가 민원사항

은 사전 예방서비스 근무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삼동 서장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1마을 1경찰관 담당제를 도입했다"며 "항상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북



순창 '레일그린'-대전 코레일 업무협약

순창군은 19일 "올해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인 '레일그린'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레일그린은 코레일에서 '농촌희망더하기'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됐으며, 현재 코레일, 농촌진흥청, 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역 확대 계획에 따라 내부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순창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코레일 정경영 사장과 황승수 순창군수 등 5개의 지

자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순창군에서 선정된 여행상품은 '참 좋은 순창나들이'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매주 2차례 80여명이 정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출발, 남원역에 도착해 농산물 수확과 엄마손 시골밥상, 이동힐링푸드장터, 강천산트레킹, 지역문화 유산 등을 체험하는 상품이다.

정경은 기차역이 없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레일그린사업에 적극 참여해 선정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완주 삼례 양곡창고의 대변신

일제수탈 아픔 딛고 문화예술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전북 완주군 삼례 양곡창고가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완주군은 19일 "지난 2011년부터 이 양곡창고는 일제 강점기 도내에서 수탈된 쌀을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실어 내기 전에 보관하던 곳이다. 특히 삼례 양곡창고는 지금까지도

원형을 가깝게 남아있고, 내부 또한 당시 쌀의 신선도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잘 보존돼 있다.

1970년대까지 관내 양곡창고로 활용됐으나 이후 삼례역이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이동되고 도심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양곡창고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완주군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례 예술촌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 공간을 문화체험장으로 고쳤다.

기존 창고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미디어아트 갤러리, 디자인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것.

예술촌은 크게 정보 센터, 미디어 예술 갤러리, 책 공방 북아트센터, 디자인 박물관, 목공소, 책 박물관, 야외공연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완주군은 "예술촌을 주민과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무주 여성취업박람회 성료

전북 무주군이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지난 16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주종합복지관, 섬김요양원, 무주군 약초 영농조합 등 11개 기관·업체가 참여해 사무직 9명, 생산직 26명 등 모두 40여명에게 새로운 일터를 찾아줬다. /연합뉴스

단신

순창 실내수영장 오늘 재개장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새단장을 하고 오는 20일 재개장한다.

군은 여름수영기를 대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영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19일까지 풀장내부 파스타일 교체 등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재개장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지은 지 15년이 경과

전주 덕진구 녹색쌈지공원 공개

전주시는 덕진구 우아1동 야외주차장 옆 공간에 850㎡ 규모의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해 최근 공개했다.

그동안 이 공간에는 측백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면서 악취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시는 우아1동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야외주차장으로 정비하고, 주차장에 딸린 방치된 공간을 쾌적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 녹색쌈지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전주=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 고부면 '세탁도우미 사업' 인기

정읍시 고부면이 '세탁도우미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부면은 지난 201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손발레가 어려운 이불, 두꺼운 외투 등을 세탁해주는 '세탁도우미 사업'을 해오고 있

다.

이 사업은 면사무소에 비치된 세탁기를 활용, 세탁 후 전달해주는 사업으로 본인에게 직접 신청을 받거나 도시락배달사업 및 어르신 행복 나눔 사업 참여자가 수거·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도, 고창 바지락 어장 지원비 20억 확보

전북도는 19일 "고창군내 바지락 폐사 어장을 회복하기 위해 국비 등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창 하전 앞바다에 있는 바지락 양식장에서는 지난 1월부터 바지락이 서서히 폐사해 최근까지 약 1만 600여t(1430여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의 조

사결과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상 변화와 기온차, 물풍 등으로 바지락이 잠입하지 못해 폐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피해어장에서 복원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아름다운 가게 정읍 수성점 '나눔 바자회' 대성황

'아름다운 가게 정읍 수성점'이 지난 16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정읍시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3주년 나눔 바자회'를 가졌다.

바자회에는 김생기시장, 김승범시의회의장, 박승술 아름다운가게 정읍 수성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시민,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바자회에서는 시 산하 공직자들이 1인당 3점 이상 기증한 약 3320여점과 아름다운 가게 기증품들이 판매

됐다.

행사 관계자는 "가게 의류, 신발, 전자제품, 책 등 평소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한 많은 물품들이 필요로 하는 새 주인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특히 아름다운가게 활동전사들과 정읍시청 직원들이 물품정리, 안내, 물품판매 등 자원봉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